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보다 나은 정부

9.9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9. 8.(일)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9. 9. 8.(일) 11시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담당과장	윤성혁 과장(044-203-4330)	담 당 자	김성철 사무관(044-203-4334) 배명균 주무관(044-203-4338)

19년 조선업 수주, 4개월 연속 세계1위

- 19.8월 전 세계 발주선박의 73.5% 수주, 19.5월 이후 세계 1위 지속
- 19.1-8월간 선박 수주액 1위 회복(한 113억불, 중 109억불, 일 30억불)
- 고용도 18.1월 이후 1년 6개월만에 11만명대 회복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9.8월 조선업 수주 실적 및 고용동향」을 발표**하였다.

□ 19.8월 전 세계 선박발주 100만 시지티(CGT) 중 우리나라가 73.5만 시지티를 수주하여, 전체 선박 발주량의 73.5%를 우리나라가 수주하였으며,

* CGT(표준화물선 환산 톤수) : 선박의 단순한 무게(GT)에 선박의 부가가치, 작업 난이도 등을 고려한 계수를 곱해 산출한 무게 단위

○ **19.5월 이후 4개월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 선종별로는 **액화천연가스운반선 발주물량 3척 중 3척을 모두 수주, 탱커 14척 중 13척(액화천연가스 연료추진선 10척 포함)을 수주**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

(단위: 만CGT, 억불)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9 누계	'19 억불
전 세계 발주		4,313	1,342	2,801	3,108	276	173	294	162	142	119	65	100	1,331	365
수주	한국	1,095	222	761	1,308	73	75	44	37	68	58	36	74	464	113
	중국	1,335	446	1,168	1,000	133	35	131	82	33	43	20	26	502	109
	일본	1,316	239	290	526	34	41	19	21	32	10	3	0	160	30

* 19.1월 및 3~4월은 중국이 자국발주 물량 등을 기반으로 세계 1위 기록

□ 8월 수주성과를 바탕으로 **19.1~8월 수주금액**(누계)에서도 **우리나라**(113억불)**가** 중국(109.3억불)을 제치고 **세계 1위를 회복**하였다.

* 19.1-7월(누계) 기준 중국(104억불), 우리나라(96억불)로 그간은 중국이 1위

○ 다만, 19.1-8월간 수주량 기준으로는 우리나라는 464만 시지티를 수주(전 세계 발주 1,331만 CGT의 34.9%)하여, 중국 502만 시지티에 근소한 차이로 2위를 기록 중이다.

□ 이는 우리나라가 **액화천연가스운반선, 초대형 유조선(VLCC) 등 고부가가치선종의 경쟁우위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 19.1-8월간 발주된 **액화천연가스운반선 27척 중 24척(88.9%), 초대형 유조선 17척 중 10척(58.8%)을 우리나라가 수주**하였으며,

○ 중국·일본 등의 자국 발주 및 수주 물량을 제외하면 전 세계 **발주 물량의 대부분을 우리나라가 수주**하고 있다.

* 우리나라가 미수주한 액화천연가스운반선, 초대형 유조선은 중국.일본 등 자국 발주.수주 물량

□ **19.1~8월간 건조량은 676만 시지티로 전년 동기대비 14% 증가**하였다.

○ 16년 수주절벽에 따라 **18년 건조가 772만 시지티로 최저점*을 기록**하였으나, 17~18년 수주 증가에 따라 **19.4월 이후 건조량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수주-생산 간 시간차는 약 1~2년 소요 추정

(단위: 만CGT, 전년동기대비 %)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18년	'19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8월 누계	8월 누계
1,269 (4%↑)	1,236 (3%↓)	1,057 (14%↓)	772 (27%↓)	144 (4↓)	62 (8↓)	74 (15↓)	67 (7↑)	80 (49↑)	85 (247↑)	118 (50↑)	46 (33↓)	593 (26%↓)	676 (14%↑)

□ 조선산업 고용도 건조량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며, 18.8월 10.5만명으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회복 중이며, **18.1월 이후 18개월 만인 19.7월에 11만명대 고용을 회복**한 바 있다.

조선업 고용(만명) : (15말)18.8 → (17말)11.4 → (18.8) 10.5 → (18말)10.8 → (19.7~8)11.0

□ 산업부 관계자는 “**전 세계 발주**가 세계적인 경기하강,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당초 예상보다 부진한 상황**에서, **액화천연가스선, 초대형 유조선 등 고부가가치 선종**의 압도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1위를 지속하는 등 선전하고 있다.**”면서,

○ “아울러, **17-18년 수주확대의 결과**로 최근 **건조 및 고용도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올해 하반기 이후 **러시아, 카타르, 모잠비크 등의 대형 프로젝트 발주**가 예정되어 있어, **수주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김성철 사무관(☎ 044-203-43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